

광장의 낭만이 열리다 낮선 음악에 스며들다

국적·장르·언어 각기 다른 음악 향연
ACC재단, ‘엑스뮤직페스티벌’ 성황
밴드 터치드·카더가든 등 무대 열광

“터치드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왔어요. 아침 8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공연이 너무 기대돼요.”
지난 31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앞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비가 내린 뒤 점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m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선 상태였다. 인기 밴드 터치드의 무대를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ACC 엑스뮤직페스티벌(ACC XMF)’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재단이 기존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을 새롭게 리브랜딩해 선보인 행사다. 국적과 장르, 언어가 각기 다른 음악이 무대를 채우며 광주 시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향연을 선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ACC XMF에는 세계 음악의 최전선을 달리는 국내외 아티스트 20여팀이 참여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개막식 ‘X의 제전’. 김도연 편뎃을 비롯해 배일동, 전송이, 피

터 에반스, 필립 골롭, 샘 미나이, 전주판소리합창단 등이 참여한 무대였다. 재즈아티스트와 국악인의 만남은 ‘계획된 즉흥’을 통해 장르와 국적의 경계를 허무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비명 같기도,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와 연주가 겹겹이 쌓이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다시합시다’라는 회문(回文·앞뒤로 읽어도 같은 글귀)을 통해 기존 예술의 규범을 허물고 새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다시합(合)시다’라는 표현으로 연대와 공동체의 의미도 담았다.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듀오 애니멀 다이버스의 공연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호주 원주민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 원형 첼판으로 몽환적인 음색을 내는 유유타악기 ‘핸드팬’, 일렉트릭 기타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연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낯선 음악에 자리를 지키던 관객들도 연주가 이어지자 하나둘씩 몸을 흔들며 음악에 몰입했다.
멤버 조현은 “팀의 작은 꿈 중 하나였던 ACC XMF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보컬 없는 대중적이

지 않은 음악을 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우리의 방향성이 이번 축제와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카더가든과 오존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가까이서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줄을 선 관객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는 기대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두 아티스트는 새 앨범 수록곡 ‘BIG BIRD’와 ‘BETTER’는 물론 미발표곡과 ‘Home Sweet Home’ 등을 선사하며 호응을 이끌었다.
관객 정우석(28)씨는 “카바카 피라미드의 레게 공연 등 다른 무대도 즐거웠지만 역시 카더가든과 오존 공연이 가장 좋았다. 평소 이들의 음악을 자주 듣는데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기뻐다”고 말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밴드 터치드의 폐막 무대였다. 강렬한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주목받은 터치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다. 이들을 보기 위해 다른 지

역에서 광주를 찾은 관객도 있었다. 오만정(여·30)씨는 “어제 저녁 광주에 도착해 아침부터 공연을 기다렸다. 가장 기대되는 곡은 신곡 ‘Get Back’”이라며 “ACC XMF 덕분에 터치드 공연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터치드의 공연이 시작되자 ACC 광장은 순식간에 락페스티벌 현장으로 바뀌었다. 밴드는 ‘Hi Bully’, ‘야경’, ‘새벽별’, ‘Highlight’ 등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관객들 일부는 어깨를 붙잡고 열차를 만들거나 강강술래를 하듯 서로 부딪히며 ‘슬랩(메탈·락 공연에서 관객들이 둥글게 모여 몸을 부딪는 춤)’을 즐기기도 했다.
원일 예술감독은 “공연 입장권 가격이 다소 올랐음에도 지난해보다 62%나 판매량이 늘어 수치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더운 시간을 피해 저녁 공연을 진행하고, 다채로운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ACC XMF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확립해 음악 애호가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



◀‘ACC엑스뮤직페스티벌’이 지난달 29~31일 ACC 일원에서 펼쳐졌다. 싱어송라이터 오존과 카더가든의 공연 모습. ©ACCF BHT00
▼밴드 터치드의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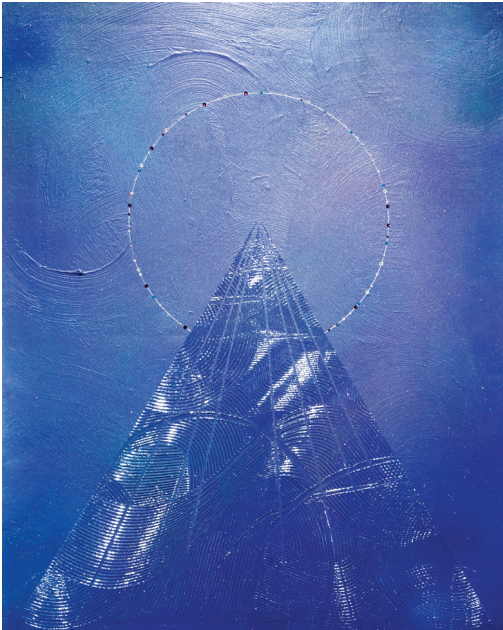


인간과 우주, 삶의 무늬와 감성

주안미술관, 12일까지 기획전

‘별의 바다, 깨어난 삶’.
우리 사는 세상은 아니 그 너머의 우주는 광활하다.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의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다. 그러나 저마다 인간은 각기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다.
주안미술관에서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기획전은 인간과 우주, 삶의 무늬와 감성을 느끼게 한다. 문승환, 오혜성, 최이안, 한예원 작가가 참여했으며 각기 키워드는 ‘우주’, ‘바다’, ‘빛’, ‘생명’으로 집약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창작 현장을 전시장으로 확장한 ‘작업라운지’ 시리즈 5회차로 진행된다.
송진주 학예사는 “이번 4인 작가 전시는 저마다 작가들이 같은 주제를 자신만의 시각과 감성으로

구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관람객들이 드넓은 우주 속의 인간의 존재를 탐색하고 정체성을 사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승환의 ‘파도’는 두터운 실타래를 형클어놓은 듯한 바다를 형상화했다. 눈에 보이는 피사체로서의 파도라기보다 작가 내면에 드리워진 감정의 실체, 어떤 응축된 에너지의 힘이 느껴진다. 화폭의 강렬함은 관객의 시선으로 전이되고, 또 다른 감성의 결을 낳는다.
오혜성 작가는 ‘해성’이라는 이름처럼 별과 은하를 모티브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작품을 구현했다. 밤하늘 망망한 우주의 모습 이면에 드리워진 은하의 신비로움과 그 속에 깃든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초점화했다. ‘B-250125’는 작가의 심미안으로 구현한 우주의 특정한 공간을 기호화한 듯하다. ‘해성’이라는 이름이 또 어떤 ‘해성 같



오혜성 작 ‘B-250125(Orbit)’

은’ 작품을 창출할지 기대를 갖게 한다.
기억의 경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한 최이안 작가는 자전적 세계를 모티브로 한다. 작가의 심연에 드리워진 기억의 실체, 지나온 순간의



한예원 작 ‘등불’

특정한 시간, 말로 표현되지 못했던 언어들이 작품에 몽땅 그려져 있다. ‘되감겨온 밤’에 펼쳐진 안개와 같은 흐릿한 풍경은 작가가 추구하는 어떤 예술세계의 한 단면으로 다가온다.
한예원 작가의 작품은 동화적이면서도 판타지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는 모습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별을 향해 손짓하는 소년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등불’은 도전과 미래, 교감의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맑은 아이들 목소리로 전하는 우정과 화합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제’ ...6일 광주예술의전당

“세상이 어둡고 무서워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난 두렵지 않아요. 나는 혼자자 아니죠.”(김희철 사·신상우 곡 ‘소원’ 중)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도심을 물들인다. 서로 다른 개성과 하모니가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노래가 우정과 화합의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을 적실 예정이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5회 광주광역시소년소녀합창제’를 펼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합창제는 지역 합창단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음악 축제로, 아이들의 재능과 열정을 시민과 나누는 자리다.
올해 무대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파랑새합창단, 살레시오초 마인합창단, 광주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 광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까지 총 6개 단체, 200여 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가곡·동요·종교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채우며 총 12곡을 선보인다.
공연의 문은 이현숙 지휘의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이 연다. 라틴어 성가곡 ‘Saecula Saeculorum’과 ‘평화의 춤’으로 장엄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이어 무대에 오르는 광주파랑새합창단(지휘 김창식)은 장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답게 더욱 특별한 감동을 준비했다. 제26회 MBC창작동요제에서 사랑받은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와 ‘함께 걷는 길’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다.
살레시오초 마인합창단(지휘 박해리)은 김동진 의 명곡 ‘목련화’ (조혜영 편곡)와 ‘노래하는 친구들’로 또래의 맑은 에너지를 담아내고, 가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지휘 백정빈)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난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시편 150편의 구절을 음악으로 담아낸 ‘Psalm 150’과 ‘삶의 리듬’을 통해 종교적 색채와 리듬감 있는 무대를 펼친다. 이어 광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지휘 양정은)은 ‘Together’와 ‘무궁화’로 진속하면서도 힘찬 에너지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평화를 염원하는 ‘새날이 오네’와 ‘평화의 세상’를 들려주며 합창제가 지향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맑은 목소리로 전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더욱 특별하다. 참여한 모든

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소원’을 함께 노래한다. 광주예술의전당장인 윤영문 지휘자가 직접 무대를 이끌며 아이들과 관객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합창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 전당장은 “아이들의 꿈과 끼가 모여 하나의 울림이 되는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라며 “많은 시민이 함께해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5000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90년대 뮤직비디오 감상실이 살아난다

광주영화영상인, 6일 ‘시네x클럽’

1990년대 성행했던 ‘뮤직비디오 감상실’이 30여 년 만에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난다. 음악과 영상이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그 시절의 실험 정신이 다시 펼쳐지는 곳.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충장로 ‘디디에프 스페이스(DDF Space)’에서 ‘극장월장劇場越牆, cinema DADA①: 시네x클럽’을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1990년대 유행했던 뮤직비디오 감상실 문화를 소환하는 특별 상영회로, 메탈·디스코·얼터너티브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직비디오를 DJ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추방당한 자들에게엔 음악이 필요하지”라는 주제로 열리며, 음악과 영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실험적 무대를 선사한다. 관객들은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어울릴 수 있다.
‘극장월장’은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기획한 장기 프로젝트로 기존 영화관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화 문화를 실험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영문 부제 ‘cinema DADA’는 20세기 초 전위 예술 운동 ‘다다이즘’에서 차용한 것으로 영화관을 단순한 상영 공간이 아닌 문화 실험의 무대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상징한다.
첫 번째 시리즈인 ‘시네x클럽’은 광주 지역문화의 맥락 속에서 출발한다. 당시 뮤직비디오 감상실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음악과 영상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일종의 문화 실험장이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1990년대 광주 문화의 기억을 오늘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작업으로 확장된다.
프로그램은 영화영상인연대와 함께 지역의 여성 독립 큐레이터·연구자 그룹 ‘키마이라(Kimaira)’가 공동 기획했다. 키마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동시대적 이슈를 전시와 연구로 풀어내는 팀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1990년대 광주 문화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현재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상훈 이사장은 “영화관을 제도적 틀에 가둔 공간이 아닌 폭발적인 문화 실험의 장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 1만 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